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청년들이 돌격대적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끄신 현명한 령도

리 명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강한 새 민주조선 건설에 적극 참가하는것은 혈기왕성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김일성전집》 제3권 403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자연 개조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청년들을 내세워주시고 그들이 돌격대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해방후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청년들이 돌격대적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청년들이 대자연개조사업의 첫 봉화인 보통강개수공사에서 돌격대적역할을 하도록 하신것이다.

지난날 보통강은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준 수난많은 강이였다.

보통강을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키는데는 보통강에 피눈물을 뿌리며 살아온 이곳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이였으며 전체 평양시민들의 절절한 소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원한의 강을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청년들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주체 34(1945)년 12월 지방현지지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보통강의 토성량을 바라보시며 이 강을 락원의 강으로 전변시켜 인민들의 재난의 력사를 끝장내야 한다고 하시며 대자연개조의 원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4월

9일 몸소 보통강개수공사를 위한 설계도면을 보아주시였으며 5월 5일에는 현지에 나오시여 보통강개수공사준비정형을 알아보시고 보통강개수공사는 민주건설의 첫출발인 것만큼 5월안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7월말까지 끝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5월 15일 《보통강개수공사를 급속히 완수하기 위하여 40만 평양시민에게 격한다》는 격문을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5월 19일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인민들과 청년들이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완전자주독립을 위한 새 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하여 가르치신데 이어 5월 21일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에 나오시여 격려사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통강개수공사는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자연개조사업의 첫 봉화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모든 난관을 뚫고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격려사는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새 조국건설의 역군으로서의 긍지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공사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한 고무적기치였으며 새 조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길을 밝힌 지도적지침이였다.

이날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사현장을 돌아보시다가 민청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 이르

시여 오늘은 민청원들과 겨루어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며 민청원들과 함께 일하는것은 아무때나 좋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청년일군들에게 청년사업의 중심은 이러한 국토건설사업을 하는데 두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배우고 훈련하며 조직사업과 선전사업을 조리있게 배합시킬줄 아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공사에서 작업능률을 올리자면 각종 선전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호판과 도표를 알맞춤한 거리를 두고 세워야 하며 벽신문도 내고 시사해설담화와 문화오락을 하면서 휴식시간을 즐겁게 보내야 피로도 풀리고 작업능률도 높아진다고 하시였다.

몸소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오시여 첫삽을 뜨시고 청년들을 공사의 성과적수행으로 고무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6월 4일에 또다시 현지에 나오시여 새로운 높은 공사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대중적 돌격운동을 벌려 공사를 장마철전으로 빨리 다그쳐 끝낼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민청단체들과 청년들은 주체35(1946)년 6월 6일 민청돌격대와 학생돌격대를 조직하고 개수공사장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평양시에서만도 10만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청년돌격대를 무어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공사현장으로 달려나와 산을 갈라 강줄기를 돌리고 뚝을 높이 쌓아올리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의 앞장에 섰다.

청년일군들은 공사장에 커다란 구호를 내붙이고 벽신문도 발간하였으며 설참이면 보통강개수공사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청년학생들의 열의를 불어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청년학생들이 전례없는 정치적열성을 가지고 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청년돌격대원들은 공사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찬 투쟁을 벌렸으며 제일 어려운 부문들을 담당하여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그리하여 청년들이 방대한 보통강개수공사를 단 55일동안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는데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보통강개수공사는 조국의 자연과 경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발단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공사였으며 바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청춘의 기개를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한 청년들의 자랑스런 위훈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해방후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청년들이 돌격대적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대자연개조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지도록 하는데서 청년들이 핵심적역할을 하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5(1946)년 7월 21일 보통강개수공사완공경축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보통강개수공사의 빛나는 승리를 높이 평가하시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건설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에게 앞으로도 높은 애국적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민주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을 힘있게 전개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보통강개수공사를 통하여 대자연개조의 불길을 지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온 나라에서 련이어 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민청단체들과 청년들은 보통강개수공

사에서 발휘했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과감히 떨쳐나 어려운 공사장들에서 힘찬 돌격전을 벌임으로써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단천항수축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완수하는데서 청년들이 앞장서도록 하시였다.

단천항수축공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단천군(당시)안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돌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완공하여 조선청년들의 영웅적기상을 떨친 공사의 하나였다.

단천항수축공사는 해방후 시급히 완수해야 할 중요한 공사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우리의 경제를 하루빨리 추켜세우는데서 단천항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었던 사정과 관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실정을 헤아리시고 단천항수축공사를 3달동안에 완공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단천군안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단천군안의 민청원들은 《우리 2만 2천 단천민청원들은 성스러운 의무로동으로 단천항축성에 총돌격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공사에 떨쳐나 돌격전을 벌려 세계항만축조력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주체35(1946)년 8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그해 10월 15일에 완공되여 홍남지구 인민공장(당시)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첫선박을 입항시킬수 있었다.

우리의 청년들과 민청원들은 단천항수축공사뿐만아니라 압록강호안공사, 룡흥강개수공사, 해주축항공사, 삼신운탄선공사 등 조국의 자연을 개조하고 자주독립국가를 일

떠세우기 위한 어려운 공사들마다에서 돌격대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우리의 청년들은 관개공사와 강하천정리에서도 영웅적위훈을 세워 조국의 면모를 아름답게 하였다.

평남관개공사에서 청년들이 앞장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민청중앙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서 평남관개공사에서 민청단체들앞에 나서는 과업을 토의하고 민청단체들로 하여금 공사장에 민청작업대를 파견하여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담당수행하도록 하였다. 청년들은 공사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넓은 공사대상들에 민청공구를 설치하고 청춘의 열정과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민청원들은 이 공사의 첫 단계에 무려 12만 8 000여공수의 로력일을 제공하였으며 계획에 비하여 3만 1 000여공수의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첫 단계공사를 50일간이나 앞당겨 끝냈다.

이밖에도 청년들은 평안북도의 사동강하천공사, 황해도의 재령강수리공사, 함경북도의 어랑천과 두만강하천공사 등 큰 공사들에서 청년작업대를 조직하여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이렇듯 해방후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자연개조사업에서 돌격대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새 조국건설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모든 청년들은 새 조국건설시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언제나 돌격대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청년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 선군시대 청년전위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